



당달봉사

“겉으로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을 볼 수 없는 눈.”

오늘 복음에는 태생 소경, 즉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신체기관의 약 80%가 마비된 것과 같다고 하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영되었던 ‘올빼미’라는 영화에도 시력장애를 가진 침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듯이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눈을 대신할 다른 기능, 특히 청력이나 촉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대신 듣고 만지는 것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태생 소경은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당달봉사인 셈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력이나 촉각 등 다른 기능으로라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본당 재건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제님 한 분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여가며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분이 제시한 의견에 합당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셨던지 그 후로 주일미사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모른 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쯤 어느 모임에 나갔다가 그분을 잘 아는 다른 분으로부터 전화라도 한 통해서 마음을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유야 어찌 되었건 그분이 미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감정으로 인해 눈으로 보이는 형제님의 모습만 보고 그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뵈지 못한 것이지요.

당달봉사처럼 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력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작은 선물을 준비해 그분 사무실로 찾아가서 저의 미성숙으로 인해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분도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성탄미사에 자매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저에게는 돌도 없는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하느님을 뵈 수는 없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행하는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육신의 눈으로 뵈 수 없는 하느님을 영적 청력과 촉각으로라도 듣고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행도 가롤로 신부 | 경화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1사무 16,17,20,6-7,10-13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서	에페 5,8-14
복 음	요한 9,1-41 또는 9,16-9,13-17,34-38



성경 교육 봉사자 '양성 교육팀' 활동

교구청 2층에는 성경사목부 사무실이 있다. 이 방은 교구청 내 그 어느 방보다 드나드는 발길이 잦고 많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50여 명의 성경사목부 소속 성경교육 봉사자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지도 수녀님을 만나 의논과 면담을 하고, 봉사자 회의와 활동 계획을 세우며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사목부 수녀님들과 성경교육 봉사자들은 매 학기 교구 내 각 본당의 공부반에 파견되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수강자들 중에서 봉사자가 되고 싶은 분이나 될 만한 자질을 보이는 분들을 찾아내어 양성반에 인도하는 일도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다. 양성반에 추천된 지원자들은 지도 수녀님과의 면담을 거쳐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교육 봉사자 양성 준비 교육 기간은 3년으로, 마산·창원지구와 진주지구, 통영·거제지구의 지정된 본당에 지도 수녀님이 직접 찾아가 매주 1회씩 교육을 한다. 신·구약 성경 읽기, 묵상, 공부, 과제 제출, 발표와 나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진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집중교육을 통해 성경 관련 학문을 보충하고, 서적을 과제로 공부와 나눔을 하며 봉사에 필요한 그릇을 채워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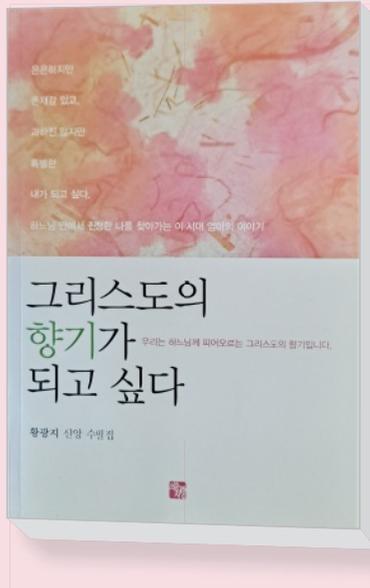
이렇게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파견을 받게 된다. 본당 공부반에 파견되기 전 파견 대상자들은 '양성 교육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교육만 받았지 실천의 경험이 없는 파견 대상자들은 막막함과 두려움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교안 작성이나 강의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양성 교육팀'이 만들어져 활동하게 되었다.

'양성 교육팀'은 마산·창원지구와 진주·통영지구로 나누어 파견 대상자와 선배 봉사자를 1:1로 맺어 실천에 필요한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지도 수녀님과 선배, 동료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첫 교안 발표를 하게 된다. 1월 30일에 진주·통영지구 5명이, 31일에는 마산·창원지구 3명이 교안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으며 실제 봉사에 임할 자세를 다졌다. 이들 8명은 2월 12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교구장 서리 신부님으로부터 제15기 성경교육 봉사자로 파견을 받고 3월 새 학기부터 파견 받은 공부반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양성 교육팀' 운영은 이제 두 차례 파견 대상자들이 지나간 새 활동이므로 부족함과 보완할 부분이 많다. 양성팀 선배들은 파견 대상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세히 나누면서 지금보다 발전된 '양성 교육팀'이 되고자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반성과 겸손을 깨달으면서 쓴 수필 <목주 이야기>

황광지 가타리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오래전에 쓴 나의 수필 <목주 이야기> 한 부분이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아쉬워서 남겨두었던 남편의 양복 한 벌을 세상 떠난 지가 4년이나 되었으니 이제 버려야겠다며 옷장에서 꺼내었다. 혹시 돈이나 있나 하고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돈이 아니라 1단짜리 목주가 나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생전에 목주를 만지는 일이 없었다. 물론 목주기도도 할 줄 몰랐다. 그런데 목주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는 말인가. 놀랍고 기특하고 가슴이 뭉클했다. 성인들이 작게 새겨진 분홍 알 목주를 남편 알리피오를 만난 듯이 꼭 쥐어보았다. 기도방법을 모르는 그였지만 이 목주를 누구한테서 받아 만지며 위안을 받았구나, 성모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의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리려던 양복을 다시 옷장에 갖다 걸었다. 성모님에게 안겨 있을 알리피오가 편안하게 그려졌다.”

지금까지 나는 개인 수필집을 여러 권 출판했다. 대부분은 지역에서 신자가 운영하는 불휘미디어에서 출판했는데, 단 한 권은 운 좋게도 가톨릭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삼십대부터 성경공부를 하면서 일생에 목상집 한 권을 내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목상집은 쉽게 엄두를 낼 일이 아니어서 신앙수필집으로 바꾸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가 그 책이며, 그 속에 수필 <목주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 수필을 쓰면서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기만 하던’ 남편의 신앙을 폄하했던 시간을 나는 반성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는 낙제’라고 판단했는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의 점수는 주님께서 매기시는 게 아닌가. 어느 누구도 주님께 외면당할 영혼은 없는 것이 아닌가.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신앙이 영글어가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아름다운 목주기도가 있어 나는 겸손을 배운다. 잃었던 아드님을 성전에서 찾고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어머니의 겸손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드님의 시신을 내려 원망 없이 안으신 어머니의 겸손을, 하늘에 불러올려 천상 모후의 관을 겸허히 받으신 어머니의 겸손을 배운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까발리게 되는 낯부끄러움이 늘 따르게 된다. 자기성찰의 시간도 자랑도 체험에서 소재를 가져와야 한다. 거짓이 아니어야 하고 진솔이 생명이므로, 시나 소설과는 달리 ‘팩트’를 말하다 보면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이 그대로를 그대로만 쓰면 문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수필로 형상화해야 하는 고뇌가 있다.

2013년에 출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에는 50여 편의 신앙수필이 실려 있다. 여러 이웃에게서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쓴 글이 있다. 나도 그리스도의 울타리 속에서 잃은 양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씩 향기를 뿜는 노력으로 쓴 글이 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쓴 글이 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9

황강과 피난 교우촌(1)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해 부산의 하단 쪽으로 흘러간다. 경남에 들어와선 강 셋을 흡수하는데 황강黃江, 남강, 밀양강密陽江이다. 황강은 거창 쪽에서 흘러나와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赤布里에서 낙동강을 만난다. 적포에는 낙동강 건너는 다리가 있다. 강을 건너면 창녕군 이방면梨房面이다. 예전엔 배를 타고 건넌고 현창玄倉나라 했다. 적포에서 낙동강 따라 내려가는 곳에 의령군 낙서면洛西面과 지정면芝正面이 있다.

위에 열거한 지역에 놀랍게도 피난 교우들이 살았던 기록이 있다. 황강 발원지로 알려진 거창의 경우는 가섭迦葉공소다.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에 있었다. 이곳은 전북 무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이 오지를 1893년 파리외방전교회 조조(Jozeau 조득하) 신부가 방문했다.

당시 조조 신부는 전북지역 공소 순방을 마치고 서부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호남교우들 안내로 거창의 오지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가섭마을 어떤 교우 집에 신자들을 모으고 판공성사와 미사를 집전했다. 6명의 어른에게 세례를 줬다는 기록까지 남겼다. 이 일대에 피난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황강이 지나는 합천지역에도 피난 교우들이 살았다. 가장 오래된 곳은 합천군 대병면 성리城里에 있었던 황개공소다. 기록은 1883년부터 등장한다. 당시 경상도 일대를 전담 사목하고 있던 로베르(Robert 김보록) 신부가 남겼다. 판공성사를 위해 황개공소를 방문했고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기록이다. 당시 교우 총수는 2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병면大井面은 거창군 남하면과 경계를 이룬다. 두 지역 사이를 황강이 흐르고 있다. 거창에서 합천으로 가는 길목이다. 오늘날 황개공소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교우들이 모여 공소예절 했던 위치도 알 수 없다. 대병면과 인근 봉산면에도 옛 피난 교우들은 남아 있지 않다.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에도 피난 교우 기록이 있다. 특히 쌍백면 평지리平地里에 있었던 고무정공소는 조조 신부의 1893년 교세통계표에 처음 등장한다. 교우 총수 3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무정공소는 현재 쌍백공소로 맥이 이어지고 피난 교우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 합천지역 다른 공소는 삼가면 어전리於田里 늘밭공소와 용흥리龍興里 호두虎頭공소다. 두 공소 역시 1900년 전후해 피난 교우들이 모여 살면서 등장했다. 훗날 늘밭공소는 어전공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호두공소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경남에 들어온 낙동강은 황강을 만나면서 완만한 모래밭을 만들며 넓어진다. 이 넓어진 강변을 경계로 의령군과 창녕군이 마주 보고 있다. 피난 교우들은 황강 따라 내려오다 이곳에서도 살았다. 창녕 대합면大合面 모래늘공소, 길곡면吉谷面 시름공소, 남지南旨에 있었던 수개공소가 피난 교우 흔적이다. 의령지역은 지정면 성당리城堂里에 있었던 성당공소와 유곡면의 덕천德川공소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정해박해(1827년) 이후 호남의 피난 교우들이 덕유산을 넘어 서부경남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황강을 따라 낙동강 쪽으로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강변의 노는 땅을 이용하며 살았다.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도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땅은 여름 홍수 때 바로 물에 잠기기에 지방 사람들은 내버려 뒀던 것이다.

그러나 피난 교우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었다. 달리 뵈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 떠날 곳, 잠시 머문다는 생각으로 강변 땅을 가꾸며 살았다. 이렇게 해서 강 주변으로 피난 교우들이 모여 들었고 주일이면 조금 넓은 집에 모여 기도를 바쳤다. 선교사들은 그런 집을 방문했고 마을 이름을 공소 이름으로 기록에 남겼던 것이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10

황강과 피난 교우촌(2)

황강의 발원지는 두 곳으로 해발 1614m 덕유산德裕山이 경상도 쪽으로 펼쳐진 곳에 있다. 먼 줄기는 거창군 북쪽 고제면高梯面 삼봉산三峰山에서 시작되고 서쪽 북상면北上面에서도 한 줄기가 발원한다. 계곡에서 모인 물이 작은 내천을 형성한 것이다. 두 개천은 거창읍을 지난 뒤에 만난다. 그리고 황강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물이 불어나면 누런 황토 색깔로 바뀌기에 황강黃江이라 불렀을 것이다.

거창의 가섭迦葉공소는 황강 발원지 북상면 인근 위천 골짜기에 있었다. 이런 오지奧地에 어떻게 신자들이 있었을까? 호남의 피난 교우들이 왔기에 가능했다. 박해를 피해 덕유산을 넘어왔던 그들 공동체가 가섭공소였던 셈이다. 1893년 조쥬(Chozeau 趙得夏) 신부는 이곳을 방문하고 판공성사를 줬다. 6명의 어른 영세자를 냈다는 보고서도 남겼다. 신부의 방문이 있기 전부터 교우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섭마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근 골짜기에도 흩어져 살고 있었다.

당시 북상면에 있었던 소정蘇井공소와 위천면 범바우공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쥬(조득하) 신부가 왔을 때 이들 모두는 가섭공소에 모였을 것이다. 가섭공소라 해서 무슨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단독 건물을 가진 공소는 없었다. 비교적 큰 신자 집에 모였고 그 집을 공소로 사용하던 시절이다. 현재도 가섭마을은 위천면 상천리上川里에 있다. 옛날 이 마을에 가섭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이름이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섭마을에 공소 흔적은 없다. 피난 교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1893년 조쥬 신부 보고서 없었다면 가섭공소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상면 소정공소와 위천면 범바우공소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교우들은 어디로 갔을까? 조쥬 신부 보고서는 1893년 한 번으로 끝난다. 거창 지역을 더 이상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듬해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봉기는 금방 확산되었고 나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가섭공소 역시 영향권에 들었고 교우들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함양을 거쳐 단성, 진주, 고성 쪽으로 흩어졌고 거창읍을 지나 합천 쪽으로 갔을 것이다. 지역마다 피난 교우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류해 주저앉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당시 합천지역을 대표하는 교우촌은 대병면 성리城里에 있었던 황개공소다. 로베르(김보록) 신부의 1883년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기록 이전부터 교우들은 살고 있었을 것이다. 덕유산을 넘어왔던 교우들이거나 경북지역에서 내려온 피난 교우들이다. 하지만 황개공소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병면 성리城里는 임진왜란 때 객재우 장군이 활약했다는 악견산성岳堅山城 아래쪽에 있다. 그런 이유로 성곽마을城里이라 불리었고 현재는 합천댐으로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겼다. 황개공소는 이곳 어딘가에 있었고 황강 따라 낙동강 쪽으로 이동하던 피난 교우들 중간 기착지였다. 로베르 신부 보고서엔 삼가三嘉 황개공소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대병면은 합천군이 아니라 삼가현三嘉縣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로베르 신부는 1882년부터 경상도 전담 사제로 있었기에 황개공소를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다. 1885년 12월 경상도 첫 본당으로 대구본당이 신설되자 로베르 신부는 초대 주임으로 발령받는다. 하지만 대구엔 못 들어가고 칠곡 신나무골에 거주하다 2년 뒤 대구로 들어갔다.

교구장 서리 등정

수녀연합회 강의

일시: 3월 20일(월) 10: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사제 총회

일시: 3월 21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방문

일시: 3월 22일(수)

나자렛 예수 수녀회 방문

일시: 3월 25일(토)

견진성사

일시: 3월 26일(주일)
장소: 대산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 종료 안내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문은 **3월 19일(사순 제4주일)**로 마칩니다. 그동안 교구청 신축을 위해 기도와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구청사 이전일 변경으로 인한 업무 중단 안내

일시: 3월 21일(화)~24일(금)
※교구청 이전 관계로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미 안내드린 기간에는 정상 근무합니다.
새 교구청사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구 교구청사의 명칭은 '가톨릭 문화원'으로 칭합니다.

교구/본당

주경환 신부 군종 파견미사

일시: 3월 20일(월) 17: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사제 총회

일시: 3월 21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023 청년성서모임 상반기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25일(토) 10:00~15: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청년성서 연수에 참석한 이력이 있는 모든 성서 가족
신청: 3월 22일(수)까지 청소년국 홈페이지 '청년부 연수신청'에서 접수
문의: 010·9924·7046(대표 봉사자), 010·2549·3056(지도 신부)

청년신앙강좌

일시: 3월 26일(주일) 13:00~15: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3월 기도모임

일시: 3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1층 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추가모집: 3월 31일(금)까지(우편 접수 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평생교육원 젊음의집 부모교육 개강 안내

일시: 4월 12일(수) 10:00~12:00(12회)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집/ 비용: 20만 원
주제: 적극적 부모 역할과 대물림된 부정적 양육법 개선하기
목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적극적·협력적이며, 대물림된 부정적 양육법을 개선할 수 있다.
문의: 010·2187·6872/ 055·255·829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피정

일시: 4월 21일(금)~23일(주일)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김토마스 수녀 010·9353·1773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3월 15일(수)~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3월 2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 소개세미나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前 전국성령기도회 담당 사제)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상담-필요시 언제나	010·7387·6219(문자 문의)/ 054·976·6219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제주도 성지순례 모집 4.3(월)~6(목)/ 4.10(월)~12(수)/ 4.28(금)~30(주일) 5.1(월)~4(목)/ 5.8(월)~10(수)/ 5.15(월)~18(목)</p> <p>■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4.14(금)~16(주일) 전주·광주 3일(오송 KTX역 집결) 4.21(금)~23(주일) 인천·의정부 3일(대구 출발)</p> <p>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hr/> <p>마산 성바오로서원</p> <p>마산 성바오로서원은 새 교구청으로 이전한 후에도 현재 교구청 자리(가톨릭 문화원)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9753-3089</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hr/> <p>■이탈리아 순례 4월 23일 출발 13박 14일 595만원 ■나가사키 순례 4월 24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 ■성모발현지 순례 5월 14일 출발 12박 13일 425만원</p> <p>b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ur.co.kr</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p> <p>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p> <p>미르코 투어 010-4239-1929</p> <hr/> <p>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p> <p>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p> <p>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중운(클레멘스)</p>
---	--	--	---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 3월 15일(수)~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중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프라) 담당 010·4559·5134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대상: 장기요양(시설)등급을 받으신 어르신(1~2등급/3~5등급)
 주소: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55·532·7811



함안안나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

대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어르신 중 시설급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 순례

올해로 157주기를 맞은 신석복 순교자의 순교를 기념하여, 순교자가 걸었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써 신앙인의 사명감을 키우고,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도보 순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25일(토) 13:40
- 장소: 수산대교 아래 파크골프 주차장에서 명례성지로 도보 순례 주차장 주소-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19-22

시간	장소	내용
13:40~14:00	수산대교 파크골프 주차장	집결 및 접수
14:00~15:30	수산 ⇒ 명례 강변	도보 순례
16:00	명례성지	치명기념미사(주일미사)

※ 미사 후 수산대교 주차장으로 차량 운전자 이송해 드립니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양곡본당 사랑하올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양곡본당(주임: 박호철 요한 신부) 사랑하올 어머니 Pr.(단장: 류지혜 안나수산나)은 3월 1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사랑하올 어머니 Pr.은 1982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8대 단장으로 총 6명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수도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오직 하느님만!’의 신앙인데, 저는 불법 체류자라고 불립니다!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어느 날 필리핀 공동체 미사 후에 낡은 백팩을 메고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50대 중반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미사를 마치고 서둘러 떠나려는 그분을 불러 세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한잔 나누자고 초대하였다.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야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시는지?” 하고 물으니 ‘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 기간이라 미사만 참여하고 집으로 가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때로는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미사에 참석하는 저를 잡혀가게 하시겠냐는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얼마나 많은 미등록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까?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왜 굳이 고향을 떠나 여기서 살고자 하는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들도 훑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이 현재 4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약 2천만 명의 미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미국, 인도,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미등록외국인 많은 나라로 전 세계 통계치는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미등록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 노동인구의 변화 및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선호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치를 놓고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분기별 1회)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얼마 전에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집중단속 기간을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3개월간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분기를 3개월로 나누는데 분기별 1차례 단속을 정례화하며, 1회차당 3개월간의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1년 내내 미등록외국인을 ‘불법’이라는 단어의 옷을 입혀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집중단속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살기 위하여 해외취업을 할 커다란 용기와 자국에서는 해외취업 준비 비용(한화 1천만에서 2천만 원)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해외에 취업했다가 짧은 체류기간을 마무리하고, 좀 더 벌고자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불법’ ‘범법’ 등의 수식어로 혐오와 사회문제로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자 관련 법제의 변화 이전에 우리들의 시선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두에 언급한 중년의 남성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분은 한국에서 체류한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다. 초기 5년 정도를 등록된 상태로 지내고 나머지 25년 이상을 미등록 상태로 거주한 것이다. 고국에 남겨놓고 온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생긴 할아버지다. 다행스럽게도 디지털 기술의 혁명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을 만나기는 하지만 얼마나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싶겠는가? 단속 기간이면 더욱 그 마음이 간절하리라. 그분은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이 메고 다니는 허름한 가방에는 30여 년을 함께한 ‘성경’이 너털너털해져 있었다. 삶이 고될 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성찬례에서 만난 육화한 예수님이셨단다.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미등록 상태의 신분이나 여러 개인적인 문제를 감추어야만 했다. 혹시나 본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 신고라도 하면 영락없이 잡혀서 추방을 당해야 하기에 조심조심 말을 아끼고 스스로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만이 30여 년간 삶의 기둥이 되었던 이분을 단지 법적인 용어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고만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온 신앙인이라는 중요한 이름은 어디로 숨어있는가?

그분께 축성된 성체를 건넬 수 있었던 그날은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행복하다. 적어도 성전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불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클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느님!’이라는 모토로 나의 사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를 청해본다.